

## 1/1(월) 전도서 3

### 전도서 1:12-18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평생동안 지혜를 써서 행한 모든 일을 바탕으로 그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 솔로몬의 부지런함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수동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지 않고 능동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이 땅의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피는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음을 다하며’는 모든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치열하고도 진지하게 살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크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16절,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크게 되기 위하여 그의 지혜를 사용하고 주변에 지혜롭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닦치는 대로 다 만나보고 거기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솔로몬은 더 크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지혜를 알고자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는 달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학자들은 지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지혜는 삶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인간 본성의 모순을 이해하고 불확실성을 견뎌내며 예측 불가능한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등등을 뜻합니다. 둘째로 지혜는 현실을 인식하는 통찰을 말합니다. 셋째로 지혜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연민을 느낄 줄 알며 융통성 있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지혜와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를 비교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택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 헛되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위의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13절, **“... 이는 괴로운 것이니..”**;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7절, **“..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만 피곤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는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러한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달리 허무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면서 삶의 평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잠 2:10, 12,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잠 3:18,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과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론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전 12:12, "내 아들이야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일은 무조건 불필요하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그 위에 하늘의 지혜가 없다면 그것 만으로는 인생이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위정자들과 정치와 경제, 국방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한국 교회와 신학교, 다음 세대 그리고 전세계에 파송 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3.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김기대 선교사님(캄보디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교회를 위한 기도:** Youth Group 을 위해서 기도합니다.